

## SUN “왼손투수 고민되네”

### 용병 알렉스 퇴출 이어 양현종 어깨 부상 하차

KIA 타이거즈의 양현종이 부상으로 캠프에서 중도 하차한다. 에리조나 스프링캠프에서 훈련 중인 좌완 양현종이 신인 투수 홍성민과 7일(현지시간) 조기 귀국한다. 양현종은 왼쪽 어깨 통증으로 정상적인 훈련을 하지 못했고, 신인 홍성민은 대학 때 다친 오른쪽 발목 통증이 재발했다. 두 투수는 귀국하는 즉시 정밀검진을 통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한 뒤 재활 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발 한 축으로 활약해온 양현종의 공백으로 새 출발을 앞둔 '선동열호'의 좌완 구상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선 감독은 타이거즈 군단의 '좌완과 불펜' 고민 해결을 위해 좌완 외국인 투수 준비를 준비했지만 선수 수급 문제와 알렉스의 중도 탈락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여기에 양현종도 부상으로 캠프에서 철수하면서 마운드 경주의 수가 줄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양현종의 5월 복귀가 가능하지만 개막과 함께 SK·삼성과 기싸움을 벌여야 하는 KIA에게 양현종의 공백은 크다. 현재 KIA 캠프에 좌완은 박경태·심동섭·진해수 3명 뿐이다. 심동섭이 지난해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며 불펜 필승조로 떠올랐지만 경험이 적은 3년차의 어린 투수다. 박경태는 좋은 투구폼을 가지고 있지만 들쭉날쭉한 피칭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했다. 지난 가을 상무에서 제대한 진해수는 군복무를 위해 잠시 팀을



양현종

떠나 있었다. 특별한 외부 보장이 없다면 세 선수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책임이 막중할 전망이다. 이들은 KIA의 마운드 재건을 위해 선 감독이 반드시 키워 내야 하는 카드이기도 하다. 6일(현지시간) KIA는 2012 스프링캠프 첫 홈백전을 가졌다. 박경태와 진해수가 먼저 테스트를 받았다. 캠프에서 선 감독의 기대를 받고 있는 박경태는 홈팀 첫 번째 투수로 나와 2이닝 동안 6타자를 범타로 막아내며 패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직구 구속은 137km를 기록했으며 커브와 포크 등의 변화구를 더해 2개의 탈삼진을 뽑아냈다. 백팀 두 번째 투수로 나선 진해수는 138km의 직구와 슬라이더로 2이닝 동안 5피안타 1사사구 2탈삼진 5실점(2자책)을 기록, 다소 부진했다. '좌완 키우기'가 시급한 속제로 떠오른 KIA에서 이들의 공 하나하나가 캠프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신지애 ‘부활’할까

내일 호주서 LPGA개막전 ... 한국계 36명 출동

세계 여자골프계 정상에 오르기 위한 한국 선수들의 강행군이 호주 멜버른에서 시작된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9일부터 나흘간 호주 로열 멜버른 골프장(파73·6505야드)에서 호주여자오픈 대회를 연다. 이 대회는 올해 신설된 것으로, 올 시즌 개막전이어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끈다. 한국여자골프계단은 지난해 LPGA 투어에서 통산 100승을 돌파하는 기쁨을 세웠다. 하지만 시즌 승수만 따지면 3승에 그쳐 한국선수들이 본격적으로 LPGA 투어에 도전한 2001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남겼다. 한국 선수들은 올 시즌에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겨우내 호주 등에서 샷 감각을 살리고 체력을 키우는 훈련을 이어왔다. 이번 개막전에는 총 140여 명의 세계 정상급 선수가 출전하고, 그 가운데 4분 1 정도인 36명이 한국계 선수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프로 데뷔 후 지난해 처음으로 우승 없는 시즌을 보낸 신지애(24·미래에셋)의 각오가 남다르다. 신지애는 지난 시즌을 끝낸 뒤 “스원에서 이문을 빼고 경기 감각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 스윙을 바꾼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고 허리 부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었다. 미국 팜스프링에서 동계훈련을 마친 신지애는 지난 1일 호주로 건너가 샷 감각을 되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US여자오픈 챔피언인 유소연(22·한화)도 이번 대회부터 LPGA 투어에 본격 개세한다. 정식 멤버 자격으로 LPGA 투어에 데뷔하는 유소연은 5일 끝난 유럽여자프로골프 투어(LET) 개막전인 호주여자 마스터스에서 크리스텔 부엘리용(네덜란드)에게 빼어난 역전패를 당했지만 정상급 기량을 충분히 과시했다. 유소연과 부엘리용은 이번 대회에서 다시 맞붙는다. 또 작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3관왕 김하늘(24·비씨카드)이 개막전에 초대받아 한국군단에 힘을 보탠다. 올해에도 한국군단의 최대 라이벌은 세계 랭킹 1위 청야니(대만)다. 청야니는 지난해 LPGA 투어 7승과 LET 대회 3승, 대만여자프로골프투어 2승 등 모두 12개의 우승컵을 수직했다. 청야니가 한국군단에 맞서 올해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

## 조코비치 ‘올해의 남자선수’

라우레우스 스포츠 대상 ‘바르셀로나’ 최고의 팀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인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가 2012 라우레우스 월드 스포츠 대상 남자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라우레우스 스포츠 아카데미는 6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시상식을 열어 남자부문에 조코비치, 최고의 팀에 스페인 프로축구 바르셀로나 등 각 부문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조코비치는 지난해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정상에 올라 지난해 윌리엄스와 US 오픈에 이어 메이저 3개 대회 연속 우승 기록을 세웠다. 호셉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휘하는 바르셀로나는 지난 시즌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를 동시에 석권하는 빼어난 성적을 올렸다. 여자 부문 최우수선수상은 장거리 육상선수 비비안 체루이요트(케냐)에게 돌아갔다. 체루이요트는 작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5,000m와 10,000m에서 우승했다. 작년 브리티시오픈 골프대회에서 우승한 대런 클라크(잉글랜드)는 올해의 재기상을, US오픈에서 우승한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신인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조코비치

또 ‘영국축구의 전설’ 보비 찰튼은 평생공로상을, 의족을 달고 육상 트랙을 누빈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남아공)는 장애인상을 각각 받았다. 라우레우스 스포츠 아카데미는 1999년부터 스포츠상 수상자를 선정해 왔다. 수상 후보들은 전 세계 700명 이상의 스포츠전문 기자와 언론인이 뽑고 최종 수상자는 47명으로 구성된 라우레우스 월드 스포츠 아카데미 회원들이 결정한다. /연합뉴스

## 여자 프로복싱 김주희 6대기구 통합챔프 도전

국내 여자 복싱의 ‘간판’ 김주희(26·거인체육관)가 세계 여자프로복싱 6대 기구 통합 챔피언에 도전한다. 김주희는 다음달 30일 오후 2시 중부대학교 범농관에서 태국의 플로리나포 세커르구론(22)과 5대 기구 통합 지명 방어전 겸 국제복싱평의회(UBC)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 결정전을 벌인다. 여자국제복싱협회(WIBA), 여자국제복싱연맹(WIBF), 세계복싱연맹(GBU), 세계복싱연맹(WBF), 여자국제복싱평의회(WIBC) 라이트플라이급 통합 챔피언인 김주희는 이 경기에서 이기면 UBC 챔피언 타이틀까지 차지하게 돼 6대 기구 통합 챔피언에 오른다. 또 2004년 국제여자복싱협회(IFBA), 2007년 세계복싱협회(WBA) 챔피언에 올랐다가 반납한 것까지 포함하면 8대 기구에서 챔피언을 차지하는 위업을 이룬다. /연합뉴스



은반위의 ‘질주’

7일 서울시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2012 전국 남녀 종합빙상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여자 대학부 500m에서 단국대 박승주가 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일일신협 조합원의 집)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 일: 루마뽀팅, 3M코팅, 모비스썬팅,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클리어, 허부언더코팅,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샤크안테나, 자동차경비일체, 빔더,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비뒀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사리 일체, 이차기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전국최저가 판매, 국내최대 500평매장, 주차장 700평 주차격정 끝

###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샤크안테나

### 도난경보기 | 이자카 | 스타트버튼

▶ 거치형 본인 네비 매립 전자중 7만원 ⇒ 12만원  
 ▶ 아이나비KL100, 3D(8G)+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50만원  
 ▶ 아이나비ES500, 2D(4G)+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7만원  
 ▶ 만도정품MD300, 2D(4G)+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5만원  
 ▶ 만도지니 J7, 2D(4G)+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48만원 ⇒ 40만원  
 ▶ 모비스폰토스 PU-7, 3D+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60만원 ⇒ 52만원  
 ▶ 모비스폰토스 K-7, 2D+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5만원  
 ▶ 트립형 매립차량은 상담후결정

▶ 트립형 매립차량은 상담후결정

▶ 매립장착모델 전자중기능

만도 블랙박스 BN100

대한민국 대표 후방카메라 시그널 후방카메라

샤크안테나 및 통합안테나

▶ 본인네비 매립 = 7만원 ⇒ 12만원  
 ▶ 후방카메라 = 15만원 ⇒ 9만원  
 ▶ 샤크안테나 = 10만원 ⇒ 6만원  
 ▶ 만도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 35만원 ⇒ 30만원  
 ▶ 모비스블랙박스 4기가 전방 = 22만원 ⇒ 19만원  
 ▶ 모비스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 37만원 ⇒ 33만원

▶ 추가부품(옵션) 차량은 금액이 추가 될수 있음 \*차량용 고급합수 2만원 상당 무료증정

▶ E770B 40만원  
 ▶ E7-S 43만원 / E7-B 51만원  
 ▶ E7 37만원  
 ▶ E7 17만원